東大新聞
覺榮在熙 發行人
趙榮方又 編輯人
金光容 主幹
金容寶 編輯局長
金容寶 編輯部長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日發行 每週火曜日發行

기초과정學部, 학생용 발간

신임생에 限해 교무·학적업무 전담

지난 79년 3월에 폐지되었던 교양학부가 기초과정부(部長=金光容교수)로 명칭을 변경, 2년만에 부활되었다. 「교과정인 학생지도의 일원화」「기초과정부 편성의 다변화」「새 부서의 이미지가 학생에게 인식되어지지 않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제」 학생증및 제증명서 발급, 학생 간행물및 게시물 관계 등이다.

기초교양과정부 학생 모두는 『학생들을 재교육하여 출업후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자신의 뜻을 피력했다.

한편 현재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많은 행정직원을 배정하고 있는 기초과정부의 주요사업계획으로는 3월과 9월 영2회에 걸쳐 분담지도 교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학년별로 교양도서 독서광장대회를 열 계획이기도하다.

추가등록마감
신입생전원 完納

경리과 (과장=申昌植)에 따르면 지난 12일 추가등록 마감결과 신입생 전원이 완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등록은 신입생들이 학장단 및 학과장의 학과안내를 받은 후 총장실과 본관 2층 경리과에서 등록금납입을 마감했다. 등록금납입은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시작,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으며 21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전과생 확정
教務處(처장=河禧燮교수)

지난 12日 2학년 86名, 3學年 9名에 대해 전과를 허용했다.

2학년은 해당년 학점이 40학점 이상으로써 평점 80점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3학년은 2학년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교양도서 독서 콩쿨대회등 개최

한편 지난 12일 추가등록 마감결과 신입생은 전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한 이광석(27·회사원)군을 비롯 수석의 김동원(26·회사원)군이 각각 차점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이들 신입생은 전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한 이광석(27·회사원)군을 비롯 수석의 김동원(26·회사원)군이 각각 차점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이들 신입생은 전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한 이광석(27·회사원)군을 비롯 수석의 김동원(26·회사원)군이 각각 차점영광을 차지했다.

電算院 입학식
수석합격 이광석君

전산원(원장=安恩周교수)에서는 1981학년 입학식을 지난 16日 오전11時 전산원 강당에서 가졌다.

한편 이날 신입생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을 대표하여 수석합격한 이광석君이 선서문을 낭독했다.

教授·學生 간담회
면학 분위기 조성방안 등 토론

그에 따른 제반문제점등을 논의했다.

敎大院 월례특강
「歷史敎育의 問題」

교육대학원 (원장=李丙疇교수)에서는 「歷史敎育의 問題」라는 題題下에 월례특강을 실시했다. 鄭在煜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歷史學과 歷史敎育은 現實性을 고려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行大院 금요특강
權允赫院長 강사

행정대학원 (원장=權允赫교수)에서는 오는20일(금) 오후 6시30분 同대학원원장실에서 「입산생존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제하로 금요특강을 실시한다.

經商大學 신입생 환영회
못國根교수등 강연도

경상대학 (학장=吳德水교수)에서는 신입생환영회를 오는 19일 1시30분 중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신입생환영회에는 吳國根교수의 「中堅幹部의 資質」(영문학)교수의 「동양인의 가치관」과 전 서울대 총장이며 현재 아시아 경제 연구소장인 김대환 박사의 「경제발전과 나아갈 길」이라는 강연이 있게 된다.

신규채용직원 위해
정각원서 특강실시

신규채용직원들을 위한 특강실시가 오는 23일 실시된다.

展示會·야유회 등 다양
「문화재연구회」에선 「탁본강습회」 가져

불교학생단 (회장=정광진·문경3)에서는 오는26일 오후5시부터 학생회관6층 합창단실에서 카니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니발은 3부로 나누어 1부에는 일종의 사회로 개회식및 신입생오리엔테이션, 2부에는 sing along과 게임 및 코미디쇼 등이 있게되며 3부에는 촛불행사가 있게된다.

문화재연구회 구희 (회장=남정섭·공경2)에서는 신입생 환영 오리엔테이션및 同 써클소개를 위한 「탁본 강습회」를 오는18일 오후4시30분부터 강습회장에서 실시한다. 지난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서예복강을 실시한 후로 작품평가겸 실시하는 이번 전시전에는 서예40여점이 출품된다.

東國서도회 (회장=김승환·사학3)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제1회 신입생환영 초보자전시전」을 학생회관 2층 전시장에서 갖는다.

동아리별 정기전으로 열리는 「축제서전전」 「정기서전전」 「초보자전시전」 등 일련의 전시행사를 위한 보전시회에는 「사진이 나의 가까지」 「동그라미 활동상황」 등의 제하에 사진을 걸 예정이다.

특히 「사진이 나의 가지」는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촬영지식으로서 처음으로 기획 전시된다.

클래식기타연구회 (회장=배윤영·전산3)에서는 제1회 신입생 환영연주회를 오는20日 (금) 오후5시 대학 본관 중강당에서 실시한다. 처음 갖게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그동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6명으로 구성된 클래식기타 연주단을 소개하게 된다.

국제인물회
현재 70여명의 會員을 보유하고 있는 동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작품 40점이 전시된다.

職員人事
▲남재헌=補 전자계산원과

大學野球 춘계리그전 일정
本校, 4月16日 경희대와 첫경기

금년도 大學野球 春季리그戰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운동장및 인천문학운동장에서 열리게되는 제15회 대학야구대회는 13개팀이 A·B조로 나누어 토너멘트로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本校는 오는 19일 경희대와 첫경기를 갖게된다.

한편 이번 춘계연맹전에 적용될 규칙은 대한야구협회 (회장=崔昌熙)가 지난 2월 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14회 대학야구연맹전에서 적용된 규칙과 같다.

▲A조=東國大 한양대 인하대 경희대 ▲B조=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성균관대 ▲C조=중앙대 인천제대 단국대 ▲D조=인천시 (날짜는 4月표시일) =▲경희대 (16일·인천정설팀) ▲경남대 (18일) ▲동아대 (22일) ▲원광대 (25일) ▲인하대 (26일) 이상 서울운동장

佛大, 신입생환영 강연회
「佛大人의 사명」을 연제로 거행

佛敎大학 (학장=李鍾冠교수) 에서는 「新入生 환영강연회」를 지난13日 오후2시30분 정각에 대강당에서 교수및 신입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한 교수는 「佛大人의 사명」이라는 제하로 강연을 통해 『佛大人의 사명은 佛敎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교육을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선수권 파견1차 선발전
金永南(체교·3)君등 9名 입상

□아마레슬링

81년도 제7회전국아마레슬링선수권대회(9월 유도회관에서 개최)및 제1회 전국학생레슬링연맹회장배 쟁탈 전국대학대항 레슬링대회(7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아마 레슬링 1회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2차선발전이 지난 11, 12일 양일간 본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실업팀및 대학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大會에 本校는 12명이 出戰, 라이트급 (그레코로망형)의 金永南(체교·3)군등 3명이 우승하는등 모두 9명이 입상했다.

이번大會에 우승및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우승=金永南(체교·3 그레코로망형) ▲程勇錫(체교·3 미들급자유형) ▲咸德元(경정·1 라이트 헤비급 자유형)

◇준우승=▲孫敏圭(체교·3 라이트급) ▲金永南(체교·3 그레코로망형) ▲李鍾在(체교·3 웰터급 자유형)

◇3위=▲朴貞鎭(체교·4) ▲宋鎭燁(체교·2) ▲李根泰(체교·3) ▲林榮洙(체교·3) ▲尹炯在(경정·1) ▲任錫(체교·2)

한편 지난 12일 본교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대학대항 레슬링대회 (7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아마 레슬링 1회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2차선발전이 지난 11, 12일 양일간 본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실업팀및 대학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大會에 本校는 12명이 出戰, 라이트급 (그레코로망형)의 金永南(체교·3)군등 3명이 우승하는등 모두 9명이 입상했다.

이번大會에 우승및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우승=金永南(체교·3 그레코로망형) ▲程勇錫(체교·3 미들급자유형) ▲咸德元(경정·1 라이트 헤비급 자유형)

◇준우승=▲孫敏圭(체교·3 라이트급) ▲金永南(체교·3 그레코로망형) ▲李鍾在(체교·3 웰터급 자유형)

◇3위=▲朴貞鎭(체교·4) ▲宋鎭燁(체교·2) ▲李根泰(체교·3) ▲林榮洙(체교·3) ▲尹炯在(경정·1) ▲任錫(체교·2)

방송국실무진개편
정윤君 放送長에

本校 교육방송국에서는 방송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앞으로 많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방송국 실무진 개편을 다음과 같다.

▲방송장=정윤 (경제3) ▲제작부장=장동남 (농계3) ▲아나부장=이영수 (철학3) ▲기술부장=김명원 (전기3) ▲홍보=박춘호 (전산3) ·유부부 (언영3)

정각원 법당에불
매주 월요일마다

정각원 (원장=金鎭煥교수)에서는 지난16日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45분부터 9시까지 전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정각원법당에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갖기로 했다.

敎大院 월례특강
「歷史敎育의 問題」

교육대학원 (원장=李丙疇교수)에서는 「歷史敎育의 問題」라는 題題下에 월례특강을 실시했다. 鄭在煜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歷史學과 歷史敎育은 現實性을 고려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行大院 금요특강
權允赫院長 강사

행정대학원 (원장=權允赫교수)에서는 오는20일(금) 오후 6시30분 同대학원원장실에서 「입산생존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제하로 금요특강을 실시한다.

經商大學 신입생 환영회
못國根교수등 강연도

경상대학 (학장=吳德水교수)에서는 신입생환영회를 오는 19일 1시30분 중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신입생환영회에는 吳國根교수의 「中堅幹部의 資質」(영문학)교수의 「동양인의 가치관」과 전 서울대 총장이며 현재 아시아 경제 연구소장인 김대환 박사의 「경제발전과 나아갈 길」이라는 강연이 있게 된다.

신규채용직원 위해
정각원서 특강실시

신규채용직원들을 위한 특강실시가 오는 23일 실시된다.

展示會·야유회 등 다양
「문화재연구회」에선 「탁본강습회」 가져

불교학생단 (회장=정광진·문경3)에서는 오는26일 오후5시부터 학생회관6층 합창단실에서 카니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니발은 3부로 나누어 1부에는 일종의 사회로 개회식및 신입생오리엔테이션, 2부에는 sing along과 게임 및 코미디쇼 등이 있게되며 3부에는 촛불행사가 있게된다.

문화재연구회 구희 (회장=남정섭·공경2)에서는 신입생 환영 오리엔테이션및 同 써클소개를 위한 「탁본 강습회」를 오는18일 오후4시30분부터 강습회장에서 실시한다. 지난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서예복강을 실시한 후로 작품평가겸 실시하는 이번 전시전에는 서예40여점이 출품된다.

東國서도회 (회장=김승환·사학3)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제1회 신입생 환영 초보자전시전」을 학생회관 2층 전시장에서 갖는다.

동아리별 정기전으로 열리는 「축제서전전」 「정기서전전」 「초보자전시전」 등 일련의 전시행사를 위한 보전시회에는 「사진이 나의 가지」 「동그라미 활동상황」 등의 제하에 사진을 걸 예정이다.

특히 「사진이 나의 가지」는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촬영지식으로서 처음으로 기획 전시된다.

클래식기타연구회 (회장=배윤영·전산2)에서는 제1회 신입생 환영연주회를 오는20日 (금) 오후5시 대학 본관 중강당에서 실시한다. 처음 갖게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그동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6명으로 구성된 클래식기타 연주단을 소개하게 된다.

국제인물회
현재 70여명의 會員을 보유하고 있는 동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작품 40점이 전시된다.

職員人事
▲남재헌=補 전자계산원과

大學野球 춘계리그전 일정
本校, 4月16日 경희대와 첫경기

금년도 大學野球 春季리그戰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운동장및 인천문학운동장에서 열리게되는 제15회 대학야구대회는 13개팀이 A·B조로 나누어 토너멘트로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本校는 오는 19일 경희대와 첫경기를 갖게된다.

한편 이번 춘계연맹전에 적용될 규칙은 대한야구협회 (회장=崔昌熙)가 지난 2월 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14회 대학야구연맹전에서 적용된 규칙과 같다.

▲A조=東國大 한양대 인하대 경희대 ▲B조=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성균관대 ▲C조=중앙대 인천제대 단국대 ▲D조=인천시 (날짜는 4月표시일) =▲경희대 (16일·인천정설팀) ▲경남대 (18일) ▲동아대 (22일) ▲원광대 (25일) ▲인하대 (26일) 이상 서울운동장

佛大, 신입생환영 강연회
「佛大人의 사명」을 연제로 거행

佛敎大학 (학장=李鍾冠교수) 에서는 「新入生 환영강연회」를 지난13日 오후2시30분 정각에 대강당에서 교수및 신입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한 교수는 「佛大人의 사명」이라는 제하로 강연을 통해 『佛大人의 사명은 佛敎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교육을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선수권 파견1차 선발전
金永南(체교·3)君등 9名 입상

□아마레슬링

81년도 제7회전국아마레슬링선수권대회(9월 유도회관에서 개최)및 제1회 전국학생레슬링연맹회장배 쟁탈 전국대학대항 레슬링대회(7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아마 레슬링 1회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2차선발전이 지난 11, 12일 양일간 본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실업팀및 대학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大會에 本校는 12명이 出戰, 라이트급 (그레코로망형)의 金永南(체교·3)군등 3명이 우승하는등 모두 9명이 입상했다.

이번大會에 우승및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우승=金永南(체교·3 그레코로망형) ▲程勇錫(체교·3 미들급자유형) ▲咸德元(경정·1 라이트 헤비급 자유형)

◇준우승=▲孫敏圭(체교·3 라이트급) ▲金永南(체교·3 그레코로망형) ▲李鍾在(체교·3 웰터급 자유형)

◇3위=▲朴貞鎭(체교·4) ▲宋鎭燁(체교·2) ▲李根泰(체교·3) ▲林榮洙(체교·3) ▲尹炯在(경정·1) ▲任錫(체교·2)

방송국실무진개편
정윤君 放送長에

本校 교육방송국에서는 방송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앞으로 많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방송국 실무진 개편을 다음과 같다.

▲방송장=정윤 (경제3) ▲제작부장=장동남 (농계3) ▲아나부장=이영수 (철학3) ▲기술부장=김명원 (전기3) ·유부부 (언영3)

정각원 법당에불
매주 월요일마다

정각원 (원장=金鎭煥교수)에서는 지난16日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45분부터 9시까지 전학이념의 구현을 위해 정각원법당에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갖기로 했다.

敎大院 월례특강
「歷史敎育의 問題」

교육대학원 (원장=李丙疇교수)에서는 「歷史敎育의 問題」라는 題題下에 월례특강을 실시했다. 鄭在煜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歷史學과 歷史敎育은 現實性을 고려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行大院 금요특강
權允赫院長 강사

행정대학원 (원장=權允赫교수)에서는 오는20일(금) 오후 6시30분 同대학원원장실에서 「입산생존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제하로 금요특강을 실시한다.

經商大學 신입생 환영회
못國根교수등 강연도

경상대학 (학장=吳德水교수)에서는 신입생환영회를 오는 19일 1시30분 중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신입생환영회에는 吳國根교수의 「中堅幹部의 資質」(영문학)교수의 「동양인의 가치관」과 전 서울대 총장이며 현재 아시아 경제 연구소장인 김대환 박사의 「경제발전과 나아갈 길」이라는 강연이 있게 된다.

신규채용직원 위해
정각원서 특강실시

신규채용직원들을 위한 특강실시가 오는 23일 실시된다.

展示會·야유회 등 다양
「문화재연구회」에선 「탁본강습회」 가져

불교학생단 (회장=정광진·문경3)에서는 오는26일 오후5시부터 학생회관6층 합창단실에서 카니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니발은 3부로 나누어 1부에는 일종의 사회로 개회식및 신입생오리엔테이션, 2부에는 sing along과 게임 및 코미디쇼 등이 있게되며 3부에는 촛불행사가 있게된다.

문화재연구회 구희 (회장=남정섭·공경2)에서는 신입생 환영 오리엔테이션및 同 써클소개를 위한 「탁본 강습회」를 오는18일 오후4시30분부터 강습회장에서 실시한다. 지난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서예복강을 실시한 후로 작품평가겸 실시하는 이번 전시전에는 서예40여점이 출품된다.

東國서도회 (회장=김승환·사학3)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제1회 신입생 환영 초보자전시전」을 학생회관 2층 전시장에서 갖는다.

동아리별 정기전으로 열리는 「축제서전전」 「정기서전전」 「초보자전시전」 등 일련의 전시행사를 위한 보전시회에는 「사진이 나의 가지」 「동그라미 활동상황」 등의 제하에 사진을 걸 예정이다.

특히 「사진이 나의 가지」는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촬영지식으로서 처음으로 기획 전시된다.

클래식기타연구회 (회장=배윤영·전산2)에서는 제1회 신입생 환영연주회를 오는20日 (금) 오후5시 대학 본관 중강당에서 실시한다. 처음 갖게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그동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6명으로 구성된 클래식기타 연주단을 소개하게 된다.

국제인물회
현재 70여명의 會員을 보유하고 있는 동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작품 40점이 전시된다.

職員人事
▲남재헌=補 전자계산원과

大學野球 춘계리그전 일정
本校, 4月16日 경희대와 첫경기

금년도 大學野球 春季리그戰 일정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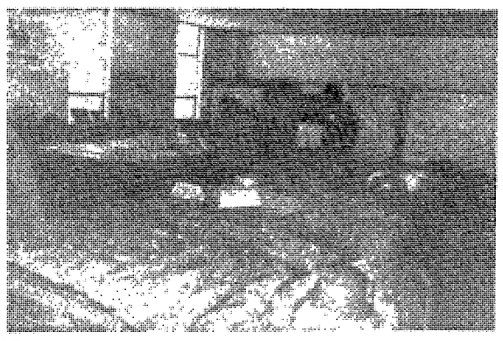
이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운동장및 인천문학운동장에서 열리게되는 제15회 대학야구대회는 13개팀이 A·B조로 나누어 토너멘트로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本校는 오는 19일 경희대와 첫경기를 갖게된다.

한편 이번 춘계연맹전에 적용될 규칙은 대한야구협회 (회장=崔昌熙)가 지난 2월 2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14회 대학야구연맹전에서 적용된 규칙과 같다.

▲A조=東國大 한양대 인하대 경희대 ▲B조=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성균관대 ▲C조=중앙대 인천제대 단국대 ▲D조=인천시 (날짜는 4月표시일) =▲경희대 (16일·인천정설팀) ▲경남대 (18일) ▲동아대 (22일) ▲원광대 (25일) ▲인하대 (26일) 이상 서울운동장

써클마다 新入生 환영 行事

써클 홍보에 重點두고 행사 전개



◇각 써클들은 신입회원 유치를 위해 환영행사를 갖고있다.

社告

男女 修習記者 募集

大學言論暢達에 先驅的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本社에서는 아래 要領으로 참신한 男女 修習記者를 모집합니다. 장차言論界로 進出하고자하는 뜻있는 學生들의 많은 應試를 바랍니다.

①募集人員 : 약간명 (應州大추후모집) 〈일반·寫眞記者〉
②應試資格 : 本校 1學年 男女在學生
③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배부중) 명함판사진 1매
④원서접수 : 81년 3월 5일~3월 25일
⑤시험일자및장소 : 81년 3월 26일 (木) 오후5시학림관 101호
⑥시험과목 : 國語 (상식포함)·英語·作文 (기사작성 포함)·面接 (사진기자는 실기포함)
⑦제 출 처 : 본사 총무부
※學生記者에겐 規定에 의하여 소정의 금료와 장학금을 지급함

1981년 3월 일

東大新聞社

1학년 대상, 26日 시험

성실한 기자를 찾습니다

社告

本社辭令

任期制了
編輯部長 朴元奭 (國文4)
取材部長 金華子 (演映4)
編輯部長 金杜 (政外3)
取材部長 金貴杜 (政外3)
企劃部長 鄭敬成 (國文3)
文化部長 鄭究緖 (工經3)
取材部長 崔恩榮 (國教3)
廣州大 黃海昌 (경주英文3)
廣州大 寫眞部長 梁在珍 (경주經濟3)

依願免職 許淳范 (國教2)
〈以上 3월17일字〉

▲李惠珣 (工科大·工業經營) 교수=지난7日字로 辭職.

保守主義란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반동적인 것은 물론 진보적 중용 사상까지의 철학이다

피터 비레크 金泰洙 / 訳

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는 진지하고 간명하고 요령있는 설명을 원하는 일반독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저술된 해설서이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보수주의의 성질이며, 결코 명확하지 않은 이 철학을 명쾌하게 파헤친 명저이다.

保守主義의 歷史的·哲學的 起源 / 國際主義로부터 民主主義로 / 資料 / 關係年表

국판 / 반양장 285면 값2,800원

國際危機속의 韓半島

鄭鎔碩 著

「東亞日報」논설위원 政治學博士

民族의 敵은 敗北意識임을 究明

韓半島의 危機는 北의 野慾보다 우리 가슴을 파고 든 敗北意識임을 역설. 나날이 다르는 危機的狀況을 넘어 完全히 나아갈 韓民族의 生存理由를 밝힌 力著.

값 2200원

世界의 名演說

루스벨트 위고 링컨 나폴레옹 네루 김구 케네디

金炳傑 / 編訳

이 연설문들은 극적 사건의 증언이며 다양한 인간 정신의 섬광이다.

정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목숨을 건 의인들의 이 웅감한 외침과 행동—그 모든 것은 인류사의 생동적 흐름이었고, 역사의 바른길을 비춰 준 횃불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레이건은

당신의 생각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雜草밭에 누워서

서민의 눈으로 보고 느낀 바를 부지런히 따져 본 생활 비평들

金泰洙 / 著

「雜草밭에 누워서」는 이색 수필집이다. 정치·경제·농촌문제를 비롯해 스포츠·TV문화까지 사회 비평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主要項—근로 조건의 氷点地帶 / 갇힌 사람들의 人權 / 통계의 마술 / 최일선을 다녀와서 / 都市禍 / 産車制限 값 2,000원

保守主義란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반동적인 것은 물론 진보적 중용 사상까지의 철학이다

피터 비레크 金泰洙 / 訳

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는 진지하고 간명하고 요령있는 설명을 원하는 일반독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저술된 해설서이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보수주의의 성질이며, 결코 명확하지 않은 이 철학을 명쾌하게 파헤친 명저이다.

保守主義의 歷史的·哲學的 起源 / 國際主義로부터 民主主義로 / 資料 / 關係年表

국판 / 반양장 285면 값2,800원

◇81학년도 사업계획

분담지도 교수회의	年2회(3월, 9월)
기초 과정부 자문 지도 교수회의	매주1회
기초필수과목 교수 연구회의	年2회(3월, 9월) ▲공통필수과목에限
제1열별 학생장수련회	年2회(4월, 7월)
제1열별 학생장회의	수시
교양도서 독서 광장대회	4, 5, 6, 9, 10, 11월(학년별)
월례 법회(특강)	매월1회
조국 순례	年2회(5월, 10월)
병영집체교육	年1회(5월)
체육대회	年1회(10월예정)
체육기구 구입	
주말야외학습	매주1회

大學의 新入生募集 方法은 신중하게

社說

육지을 각대학에서는 내년도 신입생모집방법을 검토하고 있는것같이 전해지고 있다. 학력이 높은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시험을 현행보다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 대학입시 제도의 초점이 되고 있다.

대학입시 제도는 지금까지 모집단위별로 시험과목을 다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또 시험과목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또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대학입시 제도 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이 기본방향에 따르면 대학입시 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을 지양하고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병행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예비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종래의 학력고사 성격에서 탈피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충실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 본고사는 대학별로 또는 모집단위별로 실시하되 논술고사 또는 면접고사 중심으로 하여 학생의 잠재능력과 적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대학별 입학시험은 내년 3월 중순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요강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각 대학이 발표하게 되었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현재 입학시험 실시요강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이 요강에는 대학별 입학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방법 등이 포함되게 된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입학시험 실시요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별 입학시험 과목을 정하는 것이다. 대학별 입학시험 과목을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학별 입학시험 과목을 너무 적게 부과하는 것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학생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별 입학시험 과목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학생의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대학별 입학시험 과목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대학별 입학시험 과목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라

朝鮮時代의 民衆文學

판소리는 민중문학의 으뜸

春香傳·沈淸傳등 고전에서 민중의 소망과 생활상을 그대로 표출해 내기도

<문리대교수 · 고대소설론> 金起東

一、

朝鮮朝 5백년간을 儒敎王國이였고, 양반을 중심한 귀족사회였다。우리 人生을 표현하는 文學도 유교문학이였고 귀족문학이 형성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朝鮮後期(英祖朝이후)로 들어오면서 지배계급인 양반들에 역압되어 살아오던 민중(쌍민) 들이 자각하게 되였고, 양반들의 독점이였던 文學에도 참여하게되였다。

그리하여 時調文學에서는 양반들만이 부르던 平時調의 형식을 파괴하여 자유롭게 표현할수있는 사설시조를 창안하여, 그들의 정신생활을 솔직하게 표출하기도 하였고, 양반사회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기도 하였다。

또한 歌辭文學에 있어서도 敍景的, 敎訓的, 風流的, 諷諭的인 兩班歌辭의 정형을 변형시켜, 民謠와 같은 그들 중심의 歌辭文學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우선 作者로 볼때에 兩班時調나 兩班歌辭는 작자가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 비하여, 쌍민時調나 쌍民歌辭는 전부 작자 미상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쌍民時調나 쌍民歌辭도 朝鮮時代의 民衆文學이라고 할 수 있으나, 民衆文學을 대표할 수 있는 文學은「판소리」라 하지 않을수 없다。

二、

18세기 朝鮮後期에 들어와 이제까지의 文藝에 볼수 없었던 歌唱을 위주로 하는 연극적인 문학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장르를「판소리」라 한다。판소리는 歌唱을 전문으로하는 廣大(俳優)들에 의하여 興行을 목적으로 民衆을 상대로 하여 歌唱되어 왔고 현재도 歌唱되고 있다。

그러므로 판소리의 작자는 朝鮮時代의 俳優였던 廣大들이다。廣大의 사회적 身分을 보면, 평민계급 또는 천민에 속하는 八賤의 한 계층이다。廣大들은 판소리를 상연시키고 고 소원했던 것은 兩班과 환자들 뿐는 일이였다。朝鮮朝에 있어서 양반과 평민은 계급적으로 혼자들 할 수 없었다。

그럼에「春香傳」의 春香과 李夢龍은 妓女의 子息이고 양반의 아들인 李道令과 결혼하여 朝廷으로부터는 烈女와 貞節婦人으로 褒賞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兩班들의 몸이 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沈淸이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王后가 되였다는 것은 兩班들의 꿈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판소리의 登場人物은 대부분 兩班이 아닌 廣大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三、

판소리는 놀음판의「판」과 그 놀음판에 부르는「소리」의 合成語이다。또한 판소리는 廣大들이 연출하는데, 관소리도 演劇的 要素를 많이 가지고 있다。

판소리는 처음부터 12편을 만들어가지고 歌唱하였고, 현재까지 歌唱되어 오는 동안에, 가장하는 배우들에 의하여 자기 중심으로 改作해 왔기 때문에 많은 異本들이 있게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小說家들이 가담하여 많은 作品을 개작하였다。

판소리의 文藝的인 價値를 보면, 판소리는 小說的인 面과 戲曲的인 面을 다같이 가지고 있다。朝鮮朝 傳奇小說의 대부분이 판소리 作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소리의 小說的인 面을 보면, 廣大들이 판소리를 연출하는데, 관소리도 演劇的 要素를 많이 가지고 있다。

판소리는 놀음판의 觀衆을 상대로 하여 연출하는 것이므로 觀衆의 反應에 따라 臨機應變으로 演出을 變化시켜야 하는 것이 戲曲的인 面이다。

판소리는 12편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朝鮮朝 傳奇小說을 비롯하여「沈淸傳」,「興夫傳」,「裵裨將傳」,「鼈主簿傳」,「變强武傳」,「趙雄傳」,「赤壁歌」,「壯花打令」,「武淑打令」,「神仙打令」등이다。

판소리는 부 가지 종류로는 主題를 표현해 놓은 작품과, 지배 계급인 양반들의 유선적·전제적 생활을 폭로 풍자한 작품으로 크게 나눌수있다。

민중들의 꿈을 표현해 놓은 작품은 판소리의 3대작품인「春香傳」과「沈淸傳」이다。

「春香傳」의 주인공 春香은 朝鮮朝 末期 民衆들의 반항정신을 대표하는 妓女이다。妓女의 신분으로 兩班의 아들인 李道令과 결혼하여 朝廷으로부터는 烈女와 貞節婦人으로 褒賞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民衆들의 꿈을 표현해 놓았다。沈淸의 孝女思想을 보면, 평민계급 또는 천민계급인 양반과 결혼하여 朝廷으로부터는 孝女와 貞節婦人으로 褒賞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民衆들의 꿈을 표현해 놓았다。

「興夫傳」에 나오는 놀부는 兩班을 표현하였고, 또한 지배계급인 양반에 유린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人權을 찾으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貪官汚吏인 官吏들에게 수탈을 당하여 가난에 허덕이는 民衆의 꿈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판소리는 民衆들의 꿈을 표현해 놓은 작품과, 지배 계급인 양반들의 유선적·전제적 생활을 폭로 풍자한 작품으로 크게 나눌수있다。

민중들의 꿈을 표현해 놓은 작품은 판소리의 3대작품인「春香傳」과「沈淸傳」이다。

「春香傳」의 주인공 春香은 朝鮮朝 末期 民衆들의 반항정신을 대표하는 妓女이다。妓女의 신분으로 兩班의 아들인 李道令과 결혼하여 朝廷으로부터는 烈女와 貞節婦人으로 褒賞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民衆들의 꿈을 표현해 놓았다。沈淸의 孝女思想을 보면, 평민계급 또는 천민계급인 양반과 결혼하여 朝廷으로부터는 孝女와 貞節婦人으로 褒賞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民衆들의 꿈을 표현해 놓았다。

「興夫傳」에 나오는 놀부는 兩班을 표현하였고, 또한 지배계급인 양반에 유린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人權을 찾으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貪官汚吏인 官吏들에게 수탈을 당하여 가난에 허덕이는 民衆의 꿈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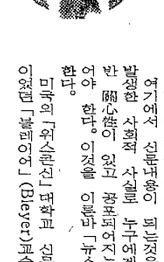
그러므로 판소리는 民衆들의 꿈을 표현해 놓은 작품이라 하겠다。

그리고 文學으로 볼 수 있다면, 詩歌냐, 小說이냐, 戲曲이냐 하는것이다。本來 낭게했다는 것을 보면, 판소리는 音樂이 文學의 3·4調 또는 4·4調의 律文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詩歌라 할 수 있고, 또한

大學言論이 나아가야 할 길

「아카데미즘」에 의한 편집 요청돼

崔 鎭 宇
〈中央大교수·新聞學〉



1、社會生活과 言論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많은 大衆들이 끊임없이로 생활하는 雜然社會이다。이들 대중의 현실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많은 情報를 필요로하게 된다。

이같은 필요성을 인간이 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지니게 된 衝動性에서 비롯된 生存本能으로 보고있는것이 독일 新聞學者들의 주장이다。

인간의 集團的인 群居生活을 하게된 무엇보다 큰 心理學的인 원인이 바로 이러한 衝動性의 발로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사실에 대한 관심은 바로 내가 살기위한 방법으로 불가피한 것인데 이것을 情報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어떻게 對處하여야하느냐 하는것을 전달 交通해 주는 수단이 있게 되었다。물론 그것은 通수단 이전에는 話者가 한정되지않은 각개인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同時的으로 전달한다면가 話者에서 한개인에게, 그개인이 또하나의 개인에게 전달하는 「릴레이」식의 新聞的 談話의 基本形態가 있었다。여기에서 話者가 談話한것이 한 개인에게와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新聞的인談話가 아닌것이다。이것을 「原始的인 新聞內容」으로 규정짓는 것이 이를바 ①누구나가 다 흥기심이 가는것 ②또 다를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 ③새로 일어난 일 等이므로 되고 있다。

그런데는 이와같은 新聞내용이 口頭에 의해서 전달되고 文字로 그 범위가 시간적 간격이 큰 것이었으나 근대화된 이후에는 기계문명의 交通수단의 발달로 그 전부수단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자체의 「매스미디어」가 나타나게 되였다。특히 電波special學의 개발로 世界는 同時間안에 인류가 필요로하는 情報를 얻을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의 國家的·社會的 생활에서 그 生活的으로 言論的 기능을 하는것은 新聞的 媒體로, 특히 新聞紙 (newspaper) 인것을 부인할수 없는 것이다。

이 신문의 社會的 事實을 報道하고 論評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事實보도와 論評은 放送媒體인 「라디오」와 「텔리비젼」이라 하더라도 新聞에 의존하는 것이다。

2、新聞의 槪念과 特性

신문의 본질을 말할때 일반사회신문을 대상으로하며 거기에서 新聞의 기능을 논하게 된다。

신문의 개념을 形態的인 면에서가아니고 내용적인 면에서 본것이 新聞學的인 견해이다。

때문에 일반적 신문의 정의는 「報道된 情報」(reported information)과 「公示性」이 있는것이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된것) 「라고」 그리고 있어야。大學言論은 一般言論의 一部分이므로 一般言論의 特性을 지니고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을 신문의 報道機能과 指導機能이라고 한다。言論機關으로서의 신문은 무엇보다 이 指導機能 (論說)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의미로서 신문의 본질에 해당되며 이 신문의 하부개념의 특성에 대한 관심의 一般性에 의해 특정지어지며 직접적인 現性의 事件이나 狀態에서 만들어진 集合體이고 다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不定期적으로 發刊되는 機械的複製物의 發表物 (刊行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어떤 「매스미디어」의 내용이 신문의 외연, 즉 現實性과 公示性 (공적의 一般性) 이었는 報道 (기계적 複製行) 가 新聞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定義로서 新聞요건을 다음과같이 말할수있다。

①그發行이 規則的으로 영속적 定期性이 있어야하며 그 발행일이 가능한 짧아야한다。

②거기에 보도된 내용이 어떤 社會事實의 일부가아니고 현재된 뉴스로서를 보도하고 여기에 解說과 의견을 첨들여 다양성을 이루는것이어야 한다。

③新聞대상의 독자가 특정되(限定된) 계층이 아니고 不特定多數人에두고 있다는 점이 新聞의 共同社會의 心的 교통으로 필요에서 의해 社會機關의 표현수단으로 존재하는것이라면 이것이 지닌 使命은 분명하다。

④機關新聞=다른 신문이 一般大衆을 상대로 한데 비하여 이 機關新聞은 特定 (限定) 된 社會集團構成員에 配布하는 신문이기때문에 그 신문내용은 一般社會性을 벗어난 그 機關內의 것이 되고있다。

어떤政治團體 (政黨등) 나 思想團體, 勞動組合, 宗教團體, 敎育機關 (學校), 企業體, 各種 商會등에서 그들 特定社會內에 일어난 事實을 보도하는 신문이다。물론 主心的인 문제에 대하여 記事化하는데 이 發行目的은 그 機關內의 스스로 社會에 뿌리를 내리는 作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할 기능과 역할이 있었으며 또한 그 신문내용은 一般社會性을 벗어나 그 機關內의 것이 되고있다。

3、大學新聞의 特性과 爭論

앞에서 본 一般新聞의 特性에 대하여 大學新聞의 本質은 내용면에서 뿐 아니라 形式面에서도 큰 차이가있다。그것은 新聞이 機關紙 또는 特定多數大衆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一般新聞=大學新聞=特定多數大衆을 取材報道하여 日刊으로 내다。이것은 지역적인 것으로 나누어 全國紙와 地方紙로 나선다。

②業界新聞 (經濟紙) =이 新聞은 不特定多數大衆이라고 보다는 그 中에서 經濟面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業界들 대상으로하여 財界, 貿易界, 各 企業등의 經濟現況과 금융계등의 情報를 보도한다。

③專門新聞=一般社會大衆中에서 전문적에 종사하는 특정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必要하고 또 有益한 記事를 취급하는 신문이다。敎育界, 宗敎界, 醫藥界, 또 어떤 전문적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적 향상과 權益을 위한 団体적 역할도 하는 이 專門紙는 週刊 혹은 月刊으로 나온다。

④機關新聞=다른 신문이 一般大衆을 상대로 한데 비하여 이 機關新聞은 特定 (限定) 된 社會集團構成員에 配布하는 신문이기때문에 그 신문내용은 一般社會性을 벗어난 그 機關內의 것이 되고있다。

어떤政治團體 (政黨등) 나 思想團體, 勞動組合, 宗敎團體, 敎育機關 (學校), 企業體, 各種 商會등에서 그들 特定社會內에 일어난 事實을 보도하는 신문이다。물론 主心的인 문제에 대하여 記事化하는데 이 發行目的은 그 機關內의 스스로 社會에 뿌리를 내리는 作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할 기능과 역할이 있었으며 또한 그 신문내용은 一般社會性을 벗어난 그 機關內의 것이 되고있다。

어떤政治團體 (政黨등) 나 思想團體, 勞動組合, 宗敎團體, 敎育機關 (學校), 企業體, 各種 商會등에서 그들 特定社會內에 일어난 事實을 보도하는 신문이다。물론 主心的인 문제에 대하여 記事化하는데 이 發行目的은 그 機關內의 스스로 社會에 뿌리를 내리는 作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할 기능과 역할이 있었으며 또한 그 신문내용은 一般社會性을 벗어난 그 機關內의 것이 되고있다。

④機關新聞=다른 신문이 一般大衆을 상대로 한데 비하여 이 機關新聞은 特定 (限定) 된 社會集團構成員에 配布하는 신문이기때문에 그 신문내용은 一般社會性을 벗어난 그 機關內의 것이 되고있다。

어떤政治團體 (政黨등) 나 思想團體, 勞動組合, 宗敎團體, 敎育機關 (學校), 企業體, 各種 商會등에서 그들 特定社會內에 일어난 事實을 보도하는 신문이다。물론 主心的인 문제에 대하여 記事化하는데 이 發行目的은 그 機關內의 스스로 社會에 뿌리를 내리는 作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할 기능과 역할이 있었으며 또한 그 신문내용은 一般社會性을 벗어난 그 機關內의 것이 되고있다。

여기에서 본 大學新聞은 機關新聞으로서의 특수성과 一般性을 다같이 가지고 있다。

①현실적 被動性이나 短期性의 보도발행이 아니다。

②一般關心性 보다 特殊關心性에 중점을 둔다。

③公示性이 아닌 特定社會의 構成員에 限된다。

④經濟的 企業目的의 發行이 아니다。

⑤기계적 複製이지만 그것은 소수량의 한도가 있다。

일반신문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기능으로 볼때 ①사회생활과 개인의 환경 감시, ②사회 각 분야와의 적응과 同化, ③각종 社會事業을 위한 報道와 解說및 論評을 하는 것이라면 大學新聞은 그 주어진 新聞的 내용과 성질로 보아 일반신문처럼 사회적 기능을 해낼수 없다。

大學新聞은 대학이라는 교육적 특수성과 입장이 있으므로 그 사회에서의 일반적관점이 인간의 求知的 本能의 求知慾을 띤 것이 아닐 뿐더러 이른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보도가 불가능이 되는 내용을 취급하여야 한다。

大學新聞은 대학의 학문적 연구와 人格도야의 생활을 위한 敎育機關으로서 존재해야할 것은 물론 敎育的인 전달수단으로 기능을 하여야 한다。

일반신문이 사회적 문화현상의 표현기관으로 존재한다면 대학신문도 마땅히 대학사회의 文化現象의 表現기관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大學新聞다워야 한다」는 것은 大學의 使命이오 任務인 眞理探究의 현상으로서의 「아카데미즘」에 의한 編輯方針이 더욱 강화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大學의 3大일부가 연구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일반신문에 나타난 「리얼리즘」의 報道客觀的 「비전」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人間性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大學이 지니고있는 특성을 살려 학문적인 창상을 위한 敎養을 위한 조성에 학력수준 「캠퍼인」 같은 專門知識을 대학의 일반敎養化 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대학의 「저널리즘」의 기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문제해결 「비전」제시, 「캠퍼인」기사의 보도도

大學의 文化現象표현 기관으로 존재

大學新聞…강력한 지도기능 가져야

鄭 用 言
〈法政大교수·國際政治〉

大學言論은 大學의 특수성과 「言論의 自由」問題는 近代國家 以後 계속적으로 漸高되고 있고, 또 言論의 機關이 私有化될 수 있는 社會여건은 言論의 公益性과 責任性의 問題가 늘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 언론은 일반적으로 學術的 기능을 한다는 것은 바로 「言論」의 本質이 무엇이가를 알고 나서야 이해할수 있다。

그것은 新聞이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과 또 일어날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론 시간안에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독자에게 제공함으로 독자들이 그 사실을 正確하고 公平하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言論의 기능을 大學言論에 적용할때 大學言論은 一般言論과 다른 점이 있다。

大學言論은 一般言論과 같이 社會의 公器로서 社會의 輿論을 代表하고 指導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大學言論은 一般言論과 다른 점이 있다。

첫째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學問的 良心에 立脚하여야 한다。

둘째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學問的 眞理探究의 目的을 가지고 있다。

셋째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學問의 自由를 보장받고 있다。

넷째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學問의 獨立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學問의 公開性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大學言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더 높은 倫理性을 가져야 한다。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더 높은 倫理性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더 많은 權力機關의 干涉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더 많은 權力機關의 干涉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더 높은 倫理性을 가져야 한다。

大學言論은 一般言論보다 더 높은 倫理性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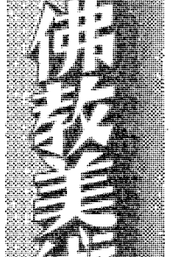
한국의 佛教美術史

古代美術의 黃金時代

한국의 불교미술사를 다음과 같이 시리즈로 엮는다.

가. 삼국시대
나. 통일 신라시대
다. 고려시대
라. 조선시대

〈편집자주〉



黃壽永 교수·佛教美術史(文理大)

〈Ⅰ〉

불교는 처음부터 예배대상을 갖고 있었다。 교주인 석존의 열반후 그의 사리(舍利=骨灰)는 八分되어 인도각지에 건립된 초기탑파에 안치되어 불교에 귀의한 신도들은 모두 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탑을 중심에 두고 가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찌기 우리 신라의 뛰어난 승려들은 인도에 이르러 이곳을 아기의 탑을 찾았던것인데, 8세기 신라의 혜초도 또한 그중의 한사람으로서 그의 往五天竺國記는 우리의 해외진출을 오늘에 전할뿐 아니라, 문헌이 거의 없는 8세기 인도의 귀중한 문헌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혜초는 「八塔雜說見」이라 하였으니 이八塔이란 곧 인도에서의 주요 佛蹟을 가르친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예배대상은 탑에서 불상으로 옮아갔다。 그리하여 無佛像시대를 지나서기 시원1세기에 들어 솜져 이외에 또하나의 예배대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원의 중심구역에는 탑과 나란히 불상이 안치되기에 이르러, 이곳을 중심으로 佛像의 제작이 성하게 되었다。

이곳은 불상과 사리는 그후 불교의 東漸에 따라서 中國에 들어왔고나 시 四세기 후반 韓半島에 이르러 北으로부터 三國에 보급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百濟唯一의 金石인 砂乞佛碑에 로 擴大하여주기도 하였다。

이곳은 石像 이외에 가지 않았던 塑像이 병행 牧始되기도하였다。 특히 직녕에 있었던 발달을 多數의 石·土像을 出土하였는데 이들은 비록 파편이기는 하나 百濟美術의 다양성과 3층양식의 유행 그리고 普賢立像으로서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인왕산 山 彌勒寺址의 本格塑像이 작년7월에 발굴된것이다。 이곳 발굴은 앞으로 부여 定林寺址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들 雄大한 作品의 高句麗佛가 새로 發見됨으로써 이 양식의 계통을 밝히게 될것이다。 이곳 발굴은 앞으로 부여 定林寺址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들 雄大한 作品의 高句麗佛가 새로 發見됨으로써 이 양식의 계통을 밝히게 될것이다。

黃壽永 교수·佛教美術史(文理大)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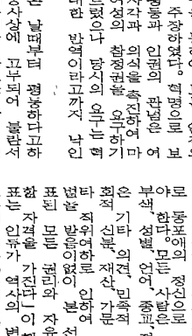
삼국의 불교는 이와같이하여 대략6세기초엽까지는 왕 귀족의 신앙으로 그후 번영의 길에 오르기에 이르러서는 奈良의 佛像에 견줄만큼 훌륭한 작품들이 나올수 있었다。 여기서 그 대표적인 작품을 몇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金銅半跏像 국보83호

女性學 개설에 즈음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등에서 기회균등 이뤄져야

自己完成으로 여성스스로의 「精神革命」 이루길



白京男 〈본지논설위원·政治학〉

우리대학은 이번 신학기부터 교양과목으로 「女性學」을 개설하였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여성문제의 체계적 이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일반사회의 요청으로 여성학에 대한 관심이 각 대학에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기에 맞은 학교당국의 배려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여성학 개설에 대한 문제가 여학생과 이에 관심이 있는 교수사이에서 몇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가 오늘에야 그 과목을 보게 되었다。

男女共學의 大學에서 여학생이라고 하여 특별히 여성학을 배우고 가르쳐야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정치·사회적인 상황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저해하고 또한 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도사리고 있어, 한여성이 자기를 實現하는 生涯를 통하여 자기를 개발하고 또 이러한 生存의 條件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성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女性의 潛在的인 能力」의 전면적인 개발과 이용을 요청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또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基本權利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존을 영위하는 모든 단계를 통하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또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基本權利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존을 영위하는 모든 단계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때문에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의 관계는 서로가 필요한 相互보완의 중요한 원리라고 보아야 한다。 여성의 지위가 높고 낮음

大學生活과 써클활동

박 정 희

I

大學은 眞理探究와 正義社會具現이라는 本然의 使命을 가지고 來日의 社會를 責任지고 이끌어 가야할 大學人은 그 社會의 理想을 어떻게 設計하며 어떠한 方法으로 接近할 것인가에 많은 關心과 興味를 가지고 있다。

大學은 眞理探究와 正義社會具現이라는 本然의 使命을 가지고 來日의 社會를 責任지고 이끌어 가야할 大學人은 그 社會의 理想을 어떻게 設計하며 어떠한 方法으로 接近할 것인가에 많은 關心과 興味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학생활은 순수학문적인 탐구를 위한 場과 사회의 발전적 창조를 기하기 위한 場으로 大別될 수 있다。

순수학문적인 진리탐구의 場은 大學固有의 Curriculum에 의하여 수업되며 이에관한 문제는 本誌의 日常的과 論理的으로 잘시 미루기로하고 正義社會具現을 위한 場은 大學生活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써클은 自由와 自律的인 분위에서 學生 스스로의 자치규범에 의하여 小集團을 형성하고 그집단의 生活을 통하여 사회를 체험하고 취미와 이념 사상이 같은 많은 학우와 폭넓은 사귐을 쌓아 갈 수있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우동장이 사회의 열린 광장이듯 써클이 사회의 열린 교수부실로 활용됨을 통하여 大學生活이 社會生活로 직접연결되는 활동할수 있는 자신있는 자세를 길러주는 장이되어야 한다。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써클을 선택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이러한 문제는 써클의 본질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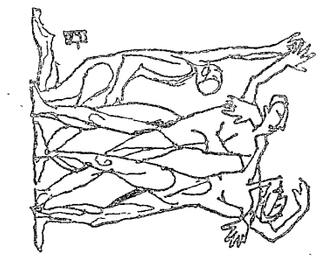
東國人이라는 철저한 소속감 가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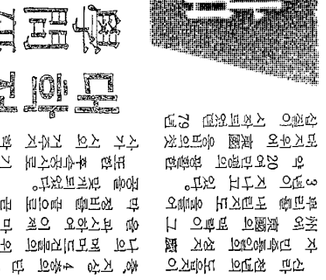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 국정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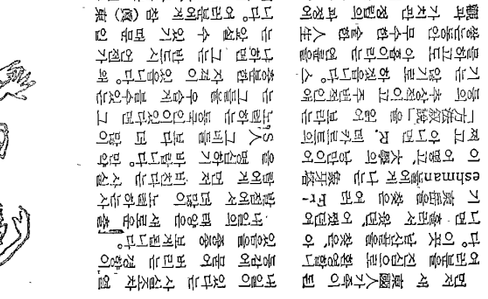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사실을 창조합시다

박정희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

사람의 생명과 모든 재산은 보호받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홀로 떠나는 試圖를

한번빠져들면 헤어날수 없는新聞社는 늪이었다

◇朴元培 〈편집부장 · 국문과〉

人間關係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處世術이 필수적이었고 약간의 우월감도 가졌다。 신흥중고교에 뛰어든 狂信徒처럼 열성적이었다。 이것은 自發的이란 참 어리석다。 그것도 생활을 충실히 하면 할 수록 더 어리석어지게 마련이다。 남이 혈게 어리석은 짓거리를 했다고 비웃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남 滿 3년동안의 철저한 외도를 통하여 그것이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다고 前提해 놓고한다。 「學生記者란 무엇인가」 이것은 상당히 難題한 물음이다。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 기자가 아니였으면 갖지 않았을 使命感에 불타였고 問題意識을 갖고자 했고 學生仕狩神에도 진력했다。 확실히 그것은 自慢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3년동안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것은 學生記者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한 人間으로서 얻은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生活을 解剖해 보는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難題한 일이다。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 기자가 아니였으면 갖지 않았을 使命感에 불타였고 問題意識을 갖고자 했고 學生仕狩神에도 진력했다。 확실히 그것은 自慢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3년동안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것은 學生記者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한 人間으로서 얻은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生活을 解剖해 보는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難題한 일이다。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 기자가 아니였으면 갖지 않았을 使命感에 불타였고 問題意識을 갖고자 했고 學生仕狩神에도 진력했다。 확실히 그것은 自慢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3년동안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것은 學生記者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한 人間으로서 얻은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生活을 解剖해 보는 것이다。

처음 修習記者때 선배 기자들을 엄포를 놓았다。 취는 시간 10분이면 자리를 지키라고。 피를게라 는 그 소리가 상투어로 들리지만 그때는 그 소리가 무슨 신조나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 때를 태우며 내 책상에 앉아있으면 모든 時間이 정지해 버리는 것 같았다。 박정에 떠가 있다。 그럴게 그렇게 걱정했던 月曜日 오후의 기사마감도, 編輯도, 組版도 다 사라지게 된다。 신문사에서의 제이름은 사라의 물결속에서 하나의 비상구라고 나 할까。 내가 제이므지 않았다면 新聞社에 불어 있길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한창 진장해 있는 신문사에서 나 수업 1시간을 스스로 빠질만큼 열중한 것은 自發的 무책임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수가 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朴元培 〈편집부장 · 국문과〉

돌아보는 일지도 없이 이렇게 걱정하고있었다。 무엇이그렇게 문제로 하게 될라 불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 때를 태우며 내 책상에 앉아있으면 모든 時間이 정지해 버리는 것 같았다。 박정에 떠가 있다。 그럴게 걱정했던 月曜日 오후의 기사마감도, 編輯도, 組版도 다 사라지게 된다。 신문사에서의 제이름은 사라의 물결속에서 하나의 비상구라고 나 할까。 내가 제이므지 않았다면 新聞社에 불어 있길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한창 진장해 있는 신문사에서 나 수업 1시간을 스스로 빠질만큼 열중한 것은 自發的 무책임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수가 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나는 전만 잘았다。 그래。 外道를 하려면 철저히해야지。 내 상황이 남아서 下層民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리석어야지。

나 내 혼을 빼간 신문사와 그 家族들에게 복수의 칼을 간다。 어리석였던 外道의 3년을 할리 허물어 버리고 나혼자의 世界를 가야겠다。 그리데 병처 病이 나고 말았다。 그동안 쌓인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져서 계에 적응하려는 試圖로 인하여 생겨드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어리석은 下層사 나와같은前轍을밟을 것인지 올바른 옷을짓고 지켜봐야겠다。

〈2부대 社開對〉

숨막히던 교독과 갈등

時間초차 등일할수없는 나날들

트임기자의 手記

◇金戴千

『난 1초라도 아끼며 열심히 공부하든가 아니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놀든지 해야지 두가지 다할려고 하는가 혹은 다하지 않을려고 한단 말이다。』 대학에 들어와 첫 장의 각인이 추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생활을 보내도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